

'아이디어' 훔치기는 부정경쟁행위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편한 길을 꿈꾼다. 더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에서는 타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idea)'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일부 기업 등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후 그 아이디어만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일부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새롭게 규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 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 요건들 중에서는 판례 등을 통해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아이디어 탈취 행위 자체가 비교적 최근 신설된 부정경쟁행위이다 보니 아직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바, 아이디어를 떠올린 기업으로서도 또한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도 위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서울이 싫어서



김지수
김현정 (정책사회부)

최근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보러 가기 전 예습을 위해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읽었다. 줄거리를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출퇴근의 고단함과 보람 없는 회사생활에 질린 주인공 계나가 행복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다.

다음은 계나가 묘사하는 출근길 지옥도. "신도림에서 사당까지는 몸이 끼이다 못해 쇠골이 다 아플 지경이야. 사람들에게 놀려서, 2호선을 탈 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람 사기라도 저질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

계나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이', 정확히는 '서울이 싫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다. 어딜 가도 북적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진다. 날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요즘에는 팔자에도 없는 운전을 배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닭장 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탈출해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다음 날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됐다. 이어 8월 31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나타났고, 같은 날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

리 인근에서 도로가 내려앉았다. 최근 3일 연속 서울 시내에서 땅 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

그간 서울시가 퍼온 정책들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곳곳이 공사판이 됐고,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올려준다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양산해냈다.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뿐만인가. 지상에 여유 부지가 사라지자 지하를 개발하겠다고 또 땅을 파고 있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수도관광역급행철도사업 등의 굴착 공사가 쉽지 않아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반의 힘을 떨어뜨리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등으로 땅 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싱크홀 원인 제공 뒤의 사후대책보다 우선시 해야 할 건 땅 꺼짐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 중단이다. /hjk1@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3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4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6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 72년생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데 적자만 연속. 84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다.
- 소** 37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49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재운도 있다. 61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73년생 무지개를 쫓아도 잡히지 않아 상실감만 따름. 85년생 돈은 없으나 지혜의 힘이다.
- 호랑이** 38년생 오랜 적선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서서히 되돌아온다. 50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을 직면한다. 62년생 인내하다 보니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온다. 74년생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다면 공부라. 86년생 다시 '참을 인' 자를 새겨보라.
- 토끼** 39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 51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63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날. 75년생 인내가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87년생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나 그래도 건강을 준수.
- 말** 40년생 그동안 노력의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52년생 누구나 아픔은 있다. 6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더 어려운 시간. 76년생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갖는 사람은 없다. 88년생 남자에게 아내는 자연히 재물에 비유한다.
- 뱀** 41년생 서북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어 길을 떠난다. 53년생 많은 사람 놔두고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서 좋을 것 없을 듯. 65년생 재산상속의 기쁨이 있다. 77년생 돈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해본다. 89년생 천을 귀인에 해당하는 귀인을 만났다.
- 닭** 42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54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66년생 누구에게나 지고 이기는 때가 있다. 78년생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측정하면 결국 나도 불행. 90년생 운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잘하라.
- 개** 43년생 형제간에 금전 거래하다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니 안 하는 것이. 55년생 마음이 즐거우니 몸도 가볍다. 6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79년생 농담도 사람 밝기며 해야 할 듯. 91년생 다져진 재능으로 다시 인정받는다.
- 원숭이** 44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진다. 56년생 빌려준 돈이 선물되어 들어오는 날. 68년생 극성 부모가 되려 하지 않도록. 80년생 동료와 견해차인 있으나 영업의 이익은 발생하여 오후에 회복됨. 92년생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은 욕심이니.
- 닭** 4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57년생 무엇이 옳든 그르든 모르겠다. 69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81년생 같은 닭띠생과 돈거래는 불행의 시작. 93년생 가족간에 아수라처럼 화를 잘 내니 되는 일이 없다.
- 돼지** 46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58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운. 70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일. 82년생 발을 갈고 곡식이 나오니 부자의 상일 듯. 94년생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있으니 먼 여행은 삼가.
- 돼지** 47년생 재산이 늘다고 인색하지 마라. 5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71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83년생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니 행복이 따른다. 95년생 인의예지가 상상이지만 상대에게만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김상회의四季 귀에 쓴 말

귀에는 거슬리더라도 약이 되는 말들을 수용해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보약임을 알지만 실천은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쉽지가 않다. 역사적으로 춘추전국을 제패한 한고조 유방의 고사(古事)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진(秦)나라를 치려고 항우와 경쟁해 온 유방은 진나라의 서울인 함양에 항우보다 먼저 입성했다. 진시황의 왕궁으로 들어간 유방은 화려한 대궐과 수많은 명마(名馬)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보화, 아름다운 궁녀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챈 장군 번쾌는 유방에게 고한다. "아직 천하가 통일된 것도 아니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니 속히 이곳을 떠나 적당한 자리에 진을 치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또 한 명의 훌륭한 지략가인 장량은 유방에게 "진(秦)이 무도한 학정을 했기에 천하의 원한을 사서 왕께서 이렇게 왕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며 이제 왕께서는 진을 멸하여 천하의 인심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상복을 입고 조위(弔慰)함이 옳으신데 진의 보물과 미녀에 눈이 쏠려 포악한 진왕의 일을 따르신다면 이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며 "본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 데는 좋은 것이며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습니다. 부디 번쾌의 충언을 따르시옵소서". (忠言逆利於行 良藥苦口利於病)라고 한 그 유명한 한자성어가 탄생했다. 이는 사기의 유후세가(史記 留侯世家)에 나오는 대목이다. 깨달은 유방은 진시황의 왕궁을 떠나 패상(霸上)에 진을 쳤으며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 보통 사람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저 간섭으로만 느껴지고 듣기가 싫다. 그저 잔소리다. 충고가 잦아지면 잔소리와 동의어가 되긴 하지만 잔소리를 이겨내면 끝은 창대할 성싶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7	4	9	8	2	6	1
1	6	4	2	7	9	8	9	9
2	9	8	8	1	6	9	4	7
8	9	6	1	8	7	4	9	2
4	8	1	9	2	9	7	8	6
7	2	9	6	4	8	1	9	9
6	1	8	7	9	4	9	2	8
8	4	9	9	6	2	1	7	8
9	7	2	8	8	1	6	9	4

할인도서

9	6	9	7	8	1	4	2	8
2	1	8	9	8	4	6	7	9
7	4	8	9	2	6	8	9	1
1	7	2	8	6	9	8	9	4
8	9	9	8	4	2	7	1	6
6	8	4	1	9	7	2	8	9
4	9	6	2	1	8	9	8	7
8	4	1	4	7	9	9	6	8
9	8	7	6	5	8	1	4	2